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People

박선아*, 정효미*, 차명화**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차명화심리상담센터장**

Sun-Ah Park(legend88@hanmail.net)*, Hyo-Mi Jeong(spapa79@naver.com)*,
Myung-Hwa Cha(cloudyvil@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 요인이 심리적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 사회적배제 요인과 심리적복지감 사이에 사회적 지지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전라북도 소재 노인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60명의 설문내용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배제 요인과 사회적지지 요인은 심리적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 요인이 사회적배제 요인과 심리적복지감 간에 부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연구결과 사회적지지 요인은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배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심리적복지감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중심어 : | 사회적 배제 | 심리적복지감 | 사회적 지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social exclusion factor of elderly people in a local communit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whether or not social support would perform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xclusion fact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e elderly people who registered with a senior welfare center located in North Jeolla Provi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exclusion factor and social support factor of the elderly people were found to have exe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the social support factor was found to have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exclusion fact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illustrated that the social support factor played a buffering role in the social exclusion factor that affecte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people.

■ keyword : | Social Exclusion | Psychological Wellbeing | Social Support |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 7월 전체인구 대비 7.2%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7년에는 전체인구대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700만 명인 노인 인구는 2037년에는 2배가 넘는 1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2].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경험하는 심·신의 쇠약과 경제적인 빈곤, 역할상실과 사회활동의 어려움, 사회적 인 관계의 단절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3].

무엇보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우울, 자살과 같은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에는 빈곤 외에도 배우자의 사망과 같이 복합적인 상황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은 오히려 축소되거나 상실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노년기 문제들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정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심화될 경우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4].

한편, 그동안 노인의 정신건강은 치매나 우울이 없는 상태인 병리적 차원에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예방 차원의 정신건강이 논의되고 있다. 노년기가 길어지고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정신 병리의 유무가 아니라, 노년기 삶의 변화에 적응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유지하면서 우울과 자살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의 정신건강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긍정적 측면의 정신건강 상태를 심리적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고 하며, 심리적복지감은 개인이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 및 안녕감을 감정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5].

이에 노인의 심리적복지감 정도를 진단하고 실천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과 인지차원의 요인 규명

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노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사회적배제가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 문제는 노인층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빈곤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6], 사회적 배제는 노인의 빈곤을 초래한 사회환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Scharf, Phillipson, Kingston과 Smith(2001)[7]도 사회적 배제 분석틀이 현재 노인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노년기와 노인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연구하였다. 무엇보다 사회적배제 분석틀은 역동적이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노인의 고용에 대한 접근성, 교육, 차별문제, 사회적 관계로 노인이 처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1]. 즉 노년기에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면 다양한 결과와 소외로 빈곤이 초래되고, 더 나아가 노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 발생이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3]. 결과적으로 노년기 노인은 사회적 배제로 활동이 축소되고 경제적인 배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강화되어 노인의 삶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3] 노인의 인지하는 심리적복지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코어(Corr, 2005)[8]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는 그 자체로도 전반적인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년기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노인의 정신건강 문제 및 심리적복지감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배제된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3][9]. 게다가 사회적 배제의 대상에서도 연구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6], 다문화 여성, 장애인,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노인의 사회적 배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이루어 졌다[3][10].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연구는 배지연 외(2006)[7]를 시작으로 사회적 배제 내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배제의 내용으로는 경제, 근

로, 주거, 의료, 건강, 교육, 사회활동 측면에서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배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7][1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배제가 노년기의 긍정적 정신건강인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노년기의 심리적복지감 증진을 위해 사회 통합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회적배제와 심리적복지감에 대한 영향은 이루어졌으나, 실천적으로 접근하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배제가 개인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적배제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동떨어져 있다는 노인의 감정은 고립감 혹은 외로움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부정적인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에 위해의 요인이 될 수 있는바[4],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사회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이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3]를 바탕으로, 사회 배제적 상태에서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중재요인으로서의 사회적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배제의 정도 알아보고, 둘째,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배제와 심리적 복지감과 의 관계를 알아보고, 셋째 사회적 배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복지감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우울 및 자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인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정신건강은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없음을 의미하는 소극적 개념이었다. 병리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료적으로 개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병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인 심리적복지감

(psychological well-being)이나 주관적복지감(subjective well-being)으로서 정신건강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3][18]. 노년기의 삶이 길어지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년기 삶의 변화에 적응하고 개인의 긍정적인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러한 적응과 경험의 지속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과 적응이 강조되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3].

심리적복지감은 추상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변형, 안녕의 상태나 정서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이나 정신건강의 정도’를 의미하거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나 만족감이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는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말하여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혹은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정도”라고 정의되기도 한다[19][20].

한편, 심리적복지감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복지, 물리적 복지과 함께 개인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지표로 적용되기도 한다.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과 안녕감을 감정과 사회인지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다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 있어서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도 연구되고 있다[5][21].

이와 같이 심리적 복지감은 심리적 건강, 행복, 적응으로 표현되는 등 다의적, 다차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구성요인 측정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생활의 만족을 나타내는 넓은 개념으로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일직선상에서 파악하는 일차원적 접근과 독립적인 영역으로 파악하는 이차원적 접근으로 구분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심리적 복지를 일직선상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복지의 개념을 행복감이나 만족 등의 긍정적 측면과 슬픔, 우울 등의 심리적 역기능을 연속된 단일 차원에 놓고 양극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게 되면서(Stallings & Dunham, 1997) 양극적 개념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었다.

관련하여 Bradburn(1969)[22][23]가 긍정적인 복지(positive well-being)와 부정적인 복지(negative well-

being)로 분류한 이차원의 심리적 복지 척도를 처음 개발하면서[23],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이 독립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복지감은 두 차원으로 존재하고 긍정적 차원을 경험한다고 해서 부정적 차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두 요인 모두가 존재는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에 개인이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인지할 때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 라고 할 수 있고 부정적이 측면이 우세할 때 심리적 복지감이 낮다라고 수용되고 있다[24].

무엇보다 리프(Ryff, 1989)[25]는 심리적복지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well functioning)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인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생활의 만족 정도가 삶의 질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긍정적 심리상태의 특성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할 삶을 사는가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은 노인이 인지하는 현재의 상황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어떻게 복지감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만족감과 안녕감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삶의 변화에 대한 적응도와 건강한 정신상태 유지를 복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감은 노인 자신의 일생에 대한 행복도 및 생의 목표달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로서 성공적인 노화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연구되어야 한다[26].

이와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의 구성요인으로 자율감, 목적감, 성숙감, 통제감, 자긍심,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로 연구하고자 한다[27][28].

2. 노년기 사회적 배제

노인문제 접근과 관련하여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개념 중 하나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이다[1][3][29][30].

사회적 배제는 ‘빈민층과 하층계급, 장애인이나 고령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집단들이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로부터 이탈되고 있거나 이미 이탈된 상태를 의미’ 한다[31].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며 관계적 특성을 가진 개념으로서[4] 다양한 맥락에서 정의되고 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정책이나 시스템으로부터 고립되는 과정[32]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의 박탈과 서비스 접근이 부적절한 상태[33][34]를 의미하기도 한다. 영국의 SEU(Social Exclusion Unit)는 사회적 배제를 ‘사람들 혹은 어떤 영역이 실업, 비숙련, 범죄율이 높은 환경, 부적절한 보건 그리고 가족 파괴 등과 같이 연관된 문제들로 인해 고통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바를 요약해서 이르는 용어’라고 규정하고 있다[3].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자원과 권리, 서비스 혹은 정상적 범주의 관계와 활동이나 참여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족상태를 포함한다. 이러한 배제적 상태는 개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의 공정한 권리와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3][35].

한편 Scharf, Phillipson, Kingston과 Smith(2001)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 분석들은 현대사회 노인들이 처한 상황이나 노년기 및 노인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7]. 현대 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의 빈곤에 한정된 시각보다 역동적이고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며, 동태적인 과정 관점에서 노인의 처한 다차원적인 불리함과 고용에 대한 접근성, 교육, 차별문제, 사회적 관계 등으로 빈곤과 배제로 노인이 처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36].

무엇보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결핍과 소외의 결과인 동시에 노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코어(Corr, 2005)등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중속적 결과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전반적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노년기의

역할상실은 결핍과 위축, 소외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적, 경제, 사회적 측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3].

구체적으로 노년기의 사회적 배제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노년기의 역할상실과 배우자의 사망과 같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친구관계로부터 소외되거나 가족해체는 노년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7]. 그리고 노인에게 있어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배제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변화, 거절, 분리로부터 개인이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고독감이나 외로움, 깊은 소외감은 그 자체로 심리적인 결핍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4]. 무엇보다 사회적 배제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배제의 영역의 하나로서[38][39],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이나 고립감은 사회적 배제와 통합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소속감과 연대감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40].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심리적 영향 측면은 사회적 배제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사회적 배제 영역들의 상호적이고 인과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초기 우리나라 사회적 배제의 연구는 주로 사회적 배제의 내용 규명이었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 연구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와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3][38], 주로 사회적 배제의 내용과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요인 규명이었다[7][10-17].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적이거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인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객관적 지표 외에도 노인의 응답을 통해서 개인차원에서 인지하는 사회적 배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41][42].

사회적배제 측정과 관련하여 이해영(2009)[3]은 Bruchardt, Le Grand와 Piachaud(2002)의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사회적 교류, 생산활동, 정치적 관여, 소비활동 등 4차원 36문항 척도를 개발하였다. 배지연 외(2006)[43]는 SEU(2006)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타 영역의 배제로 측정하였다. 강현정과 김윤정(2010)[38]은 경제적 배제, 근로배제, 주거 배제, 건강 배제, 교육 배제 사회활동 배제로 노인의 사

회적 배제를 구분하였다. 김현주(2012)[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교육 혹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연대가 끊어지는 것(The breakin of the social tie)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 속의 개인을 통합시키는 주요역할로 연구하였다.

특히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배제 자체는 전반적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배제 관점을 통해 노년기 심리적 복지감을 분석하는 것은 노년기의 결핍과 위축, 소외등의 문제들을 이해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적 요인과 경제, 사회적 측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3].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사회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위안, 충고, 물질적 원조 및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노년기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약화와 사회적 역할상실로 사회관계 축소를 경험하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44].

사회적 지지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설명도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House와 Kahn(1985)은 사회적 지지란 환경에 대한 정보나 평가, 도구적 원조, 정서적 관심 중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이 포함된 대인적 관계로서,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도움과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긍정적인 지원이라고 정의하였다[45][46].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되고 있다. 구조적 측면은 물질적·정서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유효한 지지망을 의미한다. 객관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구조적 측면은 크기, 밀도, 접촉빈도, 관계의 혼합된 정도, 상호 호혜성, 기간, 동질성, 친족과 비친족관계의 상대적 비율, 관계의 방향, 구성원 사이의 지리적 거리로 파악된다[47]. Wallston(1983)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질적 유용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접촉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48]. 또한 기능적 측면은 사회적지지망의 구성원들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도움을 나타내며 실증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주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49].

한편, 노년기의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의 심신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역할상실과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여 노인의 우울을 초래할 수 있는 소외감 등을 줄이고 생활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46][50]. 특히 사회적지지의 정도와 심리적복지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가 격려하는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을 향상시키며, 노인의 사회적지지 정도는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6][51].

구체적으로 Dean(1990)의 연구에서 노인의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는 성장한 자녀나 친척과의 상호작용 빈도보다 주관적인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빈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심리적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고 있다[47]. 김윤정(2000)[5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독거노인은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독거노인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하였다. 조경옥(2002)[53]의 연구에서도 이웃, 종교단체,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4]. 그 외 여러 연구[55][56]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심리적복지감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박현순 외(2008)[57]의 연구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지지는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고 하였다[46][58].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박지원(1985)[59]의 사회적지지의 네 가지 분류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가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 요인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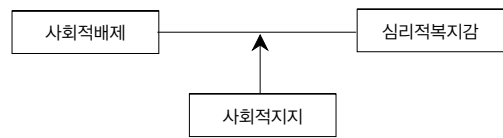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도구

1.1 사회적 배제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사회적 배제 척도로 영국 SEU(2006)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한 김태준(2010)[16]의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총 26개 문항이다. 관계적 배제(4문항), 문화적 배제(4문항), 사회적 참여 배제(4문항), 동네 배제(6문항), 기본서비스 배제(7문항), 경제적 배제(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배제의 신뢰도는 0.802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배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심리적복지감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심리적복지감 척도는 Bradburn(1969)이 긍정적인 복지와 부정적인 복지로 분류한 2차원의 심리적 복지척도 분류 모형을 기초로 김현숙(2006)이 수정 보완하고 조민자(2012)[60]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긍정적복지감은 과거의 만족정도(3문항), 현재의 만족(5문항), 미래의 만족(2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복지감은 소외감(3문항), 좌절 경험(5문항), 사회관계단절(4문항), 역할상실(3문항)로 구성되어 총 1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복지감 수준은 높고 부정

적 복지감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복지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는 0.84이다.

1.3 사회적 지지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5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기능적 측면에서 본 간접적 사회적 지지로서 정서적지지(7문항), 정보적지지(6문항), 물질적지지(6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0.981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전복지역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배포 및 가정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00부중 260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명확한 22부를 제외하고 238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응답자 238명중 남자 83명(34.9%), 여자는 155명(65.1%)로 여자가 많았으며, 나이는 65세이상 75세미만이 가장 많은 121명(51.1%), 85세미만 104명(43.7%), 85세 이상은 13명(5.5%)이었다. 응답자의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138명(58.0%), 천주교 38명(16.0%), 불교 13명(5.5%)의 순이었으며 기타응답으로 유교라고 응답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도는 가장 많은 84명(35.3%)이 초등학교졸업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중학교 50명(21.0%), 고등학교 45명(18.9%), 무학 34명(14.2%), 전문대이상 25명(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거주형태와 관련된 질문 중 배우자 유무에 대한 응답에서는 142명(59.7%)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96명(40.3%)는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관련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118명(49.6%)이었으며 혼자 살고 있다라고 응답한 노인은 31명(9.0%), 자녀부부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21명(8.8%), 배우자와 미혼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17명(7.1%)이었다. 배우자가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7명은 자녀부부와 살고 있는 경우에 포함 된 것으로 추측된다. 주거형태는 가장 많은 132명(55.5%)이 본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세 49명(20.6%), 월세 38명(16.0%), 자녀집 12명(5.0%), 무응답을 포함한 기타 7명(2.9%)이었다.

응답자 238명 중 가장 많은 160명(67.2%)은 정부의 공적부조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51명(21.4%)은 기초수급대상자라고 응답하였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7명(11.3%)이었다. 현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147명(61.8%)이었고 등록은 되어 있으나 미용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91명(38.2%)이었다. 이들 중 경로당은 142명(59.7)은 미이용중이었고, 96명(40.3%)는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8)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자	83(34.9)	배우자	유	142(59.7)	
	여자	155(65.1)		무	96(40.3)	
나이	65~75미만	121(51.1)	주거 형태	자가	132(55.5)	
	85세미만	104(43.7)		전세	49(20.6)	
	85세이상	13(5.5)		월세	38(16.0)	
종교	기독교	138(58.0)	가정경제	자녀집	12(5.0)	
	천주교	38(16.0)		기타	7(2.9)	
	불교	13(5.5)		기초수급	일반	51(21.4)
	기타	49(20.6)			차상위	27(11.3)
교육 정도	무학	34(14.2)	건강상태	매우건강	12(5.0)	
	초등학교	84(35.3)		건강	51(21.4)	
	중학교	50(21.0)		보통	109(45.8)	
	고등학교	45(18.9)		나쁜편	62(26.1)	
	전문대학이상	25(10.5)		매우나쁨	4(1.7)	
복지관 이용	이용중	147(61.8)	경로당 이용	이용중	96(40.3)	
	이용안함	91(38.2)		이용안함	142(59.7)	
가족 형태	혼자				31(9.0)	
	배우자와 동거				118(49.6)	
	배우자와 미혼자녀 동거				17(7.1)	
	미혼자녀와 동거				2(0.8)	
	아들 또는 딸 부부				21(8.8)	
	기타				4(1.7)	

2. 사회적배제, 심리적복지감, 사회적지지와의 관계

노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배제, 사회적지지가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적배제요인($\beta = -.44, p < .001$), 자아탄력성($\beta = -.16, p < .001$)은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심리적복지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61]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검증하기 전 기본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분산팽창지수(VIF)와 공차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산팽창지수의 경우 10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공차한계는 .1보다 클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VIF가 1.938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치 10이하의 값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차한계는 .762로 다중공선성 기준치 .1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위배 여부를 확인하고자 Durbin-Watson계수를 살펴본 결과 1.938로 가정이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61], 첫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에 본 연구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서와 같이 독립변인인 사회적 배제가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 = .47, p < .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사회적 배제 요인이 종속변인인 심리적복지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냈다($\beta = -.55, p < .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 종속변인인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

사회적배제 요인($\beta = -.44, p < .001$)과 매개변인 사회적지지($\beta = -.16,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히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obel공식으로 매개효과 ab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61-64].

Sobel Test결과 Z값은 4.17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p < .001$). 이는 노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분석이 검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2. 노인의 사회적배제 요인과 심리적복지감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단계	준거변인	예언변인	B
1	사회적지지	사회적배제	1.664
2	심리적복지감	사회적배제	-.686
3	심리적복지감	사회적배제	-.566
		사회적지지	-.061

SE	β	t	F
.12	.47	-7.580***	57.463***
.07	-.55	-9.216***	84.940***
.09	-.44	-6.285***	38.809***
.02	-.16	-2.326*	

* $p < .05$, ** $p < .01$, *** $p < .001$

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 요인과 심리적복지감,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노인의 사회적배제요인과 심리적복지감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매개효과를 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이 인지하는 사회적지지요인($\beta = .47, p < .001$), 심리적복지감 요인($\beta = -.55, p < .001$)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둘째, 사회적배제요인($\beta = -.44, p < .001$), 사회적지지($\beta = -.16, p < .05$)은 심리적복지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가 사회적배제요인과 심리적복지감

간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 환경으로 기인하고 노인 개인이 관계적, 정서적으로 느끼는 사회적배제에서 사회적지지는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한 이해경(200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복지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갑숙 외(2012)[23], 김미애(2012)[44]의 연구에서 규명된 사회적지지의 효과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배제의 상황에서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연구목적이 규명된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배제의 상황에서도 심리적복지감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긍정적 정신건강 상태인 심리적복지감 유지 차원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이 처한 사회 배제적 상황은 사회 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심리적복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실천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의 출처 중 인구사회학적 조건인 배우자나 자녀 외에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구, 이웃, 종교, 지역사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배제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되었으나 사회적배제의 하위요인인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적 참여 배제, 동네 배제, 기본서비스 배제 각각의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간에 어떠한 중재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 외에도 노인의 긍정적 정신건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나,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개인차가 심하고 노인의 우울, 자살, 고독사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강점관점 차원에서 긍정적 요인을 규명하고 개입 방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이 전북지역 노인 복지관 등록 노인으로 한정되어 노인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많은 무리와 한계가 따른다. 추후 표본 집단을 확대하여 복지관 등록 대상 외에도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료가 일반화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차명화의 박사학위논문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연구하였음.

참 고 문 헌

- [1] 최미영, 이승은, 박현식, “사회적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취업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9권, pp.9-29, 2015.
- [2] www.kostat.go.kr
- [3] 이해경, “노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6권, pp.315-336, 2009.
- [4] 박현주, 정순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의 변화형과 예측요인,” 한국노년학, 제32권, 제4호, pp.1063-1086, 2012.
- [5] 백경숙, 권용신, “노년기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제35권, pp.87-105, 2007.
- [6] 강현정, 김윤정,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323-334, 2011.
- [7] 배지연, 노병일, 광현근, 유현숙,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3권, pp.7-27, 2006.

- [8] P. J. Corr, "Social Exclusion and Hierarchical Defense System," Comment on McDonald and Leavy *Psychological Bulletin*, Vol.131, pp.231-236, 2005.
- [9] 강영배, "사회적배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 및 정책에 관한 고찰,"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4호, pp.101-127, 2009.
- [10] 강현정, 김윤정,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9, pp.323-334, 2011.
- [11] 김안나, "한국의 사회적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제32권, pp.227-256, 2007.
- [12] 노병일, 김은미,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이에 따른 케어복지적 함의," *대한케어복지학*, 제7권, pp.5-19, 2007.
- [13] 김상호, *한국빈곤정책과 빈곤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14] 이해리, *여성 노인 노동력의 배제와 통합에 대한 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5] 김태준,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본 노인 우울," *지역사회*, 제56권, pp.22-31, 2007.
- [16] 김태준, *사회적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7] 정운태, *노인의 사회적 배제 규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강 및 경제 의존성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8] 손덕순, *노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우울감과 심리적안정감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19] 김정영, *여성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20] 차명화, *노인의 사회적배제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21] 박영준,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스트레스, 여가만족 및 심리적 복지감과의 인과관계연구," *농촌사회*, 제20권, 제2호, pp.233-263, 2010.
- [22] N. M. Bradburn,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 being*,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p.83, 1969.
- [23] 이갑숙, 임왕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지지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91-306, 2012.
- [24] E. Dinner,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31, pp.103-157, 1994.
- [25] C. D. Ryff and C. L.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4, pp.719-727, 1995.
- [26] 최연희, 백경신, "제가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pp.39-48, 2002.
- [27] 백경숙, 권용신, "노년기의 경제활동과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5권, pp.87-105, 2007.
- [28] 김유정, 안정신, "중년기 성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성인기 이전 생활사건과 사회적지지의 영향," *한국노년학*, 제31권, 제3호, pp.445-461, 2011.
- [29] 최민정, 권정호,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불평등의 실증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7권, 제1호, pp.103-138, 2014.
- [30] 오영란,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 고찰," *한국사회정책*, 제20권, 제1호, pp.9-47, 2013.
- [31] 윤정향,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배제의 원인에 관한 시론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1호, pp.59-83, 2003.
- [32] 문진영,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권, pp.87-107, 2010.
- [33] 강신욱,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제66호, pp.9-32, 2006.
- [34] 심창학,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 *행정논집*, 제30호, pp.127-157, 2004.
- [35] R. Levitas, C. Pantazis, E. Fahmy, D. Gor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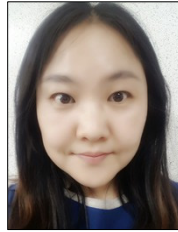
- E. Lloyd, and D. Patsios,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Institute for Public Affairs Bristol, 2007.
- [36] 최미영, 이승은, 박현식, “사회적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취업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9권, pp.9-29, 2015.
- [37] 서병수, “한국의 사회적 배제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지, 제1호, pp.721-741, 2005.
- [38] 강현경, *노년기 사회적배제*,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39] 노혜진, 김교성,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배제에 관한 종단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4호, pp.167-196, 2008.
- [40] M. Sheppard, *Social work and social exclusion: the idea of practice* Abingtch, Oxon, GBR: Ashgate Publishing Group, 2006.
- [41] P. Demakokos, *Being socially excluded and living alone in old age finding from the English Longitudnal, Study of Ageing(ELSA) Age Concern*, 2008.
- [42] S. E. U., “The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exclusion and quality of life of excluded older people,” Working with older people, Vol.9, No.3, pp.32-35, 2005.
- [43] 백혜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44] 김미애,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45] 서진교,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적 망, 사회적지지 및 건강과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13권, 제1호, pp.59-72, 2000.
- [46] 백혜영,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지지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4호, pp.73-92, 2012.
- [47] 정민승, 김경화,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제8권, pp.101-126, 2009.
- [48] 장나라, *일 농촌 노인의 사회적지지와 우울과 일상생활능력이 삶의 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49] 김윤정, 최혜경, “사회적지지로써의 노인부양,” 한국노년학, 제20권, 제1호, pp.209-223, 2000.
- [50] 백혜영,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사회적지지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4권, pp.73-92, 2012.
- [51] 김미애,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2] 김윤정, 최혜경, “사회적 지지로써의 노인부양,” 한국노년학, 제20권, 제1호, pp.209-223, 2000.
- [53] 조경옥, “무의탁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17권, pp.85-125, 2002.
- [54] 김태현, 한은주,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경험유무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권, 제3호, pp.81-106, 2004.
- [55] 전선영, “사회복지관 이용 노인의 여가만족도와 심리적복지감,”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제57권, pp.1-29, 2016.
- [56] 박영선, *저소득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7] 박현순, 나동석, “취업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40권, pp.147-72, 2008.
- [58] 남기민, 정은경,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2권, pp.325-348, 2011.
- [59] 박지원,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60] 조민자, 박옥임, 문희,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29권, pp.136-136,

2012.

- [61]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62] D. P. Mackinnon, C. M. Lockwood, J. M. Hoffman, S. G. West, and V. Sheets,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Vol.7, pp.83-104, 2002.
- [63] K. J. Preacher and A. F. Hayes,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Vol.36, No.4, pp.717-731, 2004.
- [64] 박선아, 이미림, 최재영,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의 위험요인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539-550, 2014.

정 효 미(Hyo-Mi Jeong)

정회원



- 현재 :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아동 및 청소년복지

차 명 화(Myung-Hwa Cha)

정회원



- 2015년 8월 :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현재 : 차명화심리상담센터장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겸임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저 자 소 개

박 선 아(Sun-Ah Park)

정회원



- 2011년 2월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현재 :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행정, 장애인복지